

나눔 수상스포츠교실 900여명 참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가 7월23일부터 8월5일까지 진행한 '2018 경정 사랑나눔 수상스포츠교실(사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하남시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900여명이 참가해 바나나보트, 레저카약, 웨이크보드 등 각종 수상스포츠 체험 기회를 가졌다. 참가자 전원은 수상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았다. 2004년부터 시작된 사랑나눔 수상스포츠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의 사회공헌활동으로 앞으로도 소외계층 나눔 실천과 수상레저 스포츠 저변 확대 등을 위해 계속될 예정이다.

경륜 심판판정 설명회 10일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10일 경륜 시흥지점 고객홀에서 경륜 고객 100여명을 대상으로 심판판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팬에게 경주운영과 경주규칙 조항별 판정기준에 대한 안내, 심판판정의 주요 사례를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공민우(39세, 11기, S3반), 김영곤(38세, 12기, A1반) 선수가 참석해 경륜 경주에 대한 경험을 소개하고 팬들과 질의응답 및 사인회를 갖는다. 설명회 참여 고객에게는 경륜심판 가이드북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정용운 기자

김희준, 우수급 8연속 1착…'S3' 특별승급

〈22기〉

우수급 강급 이후 9경주 입상 반전
특선급 승급 황준하 선행 능력 눈길
선발급 강급 지성환·김재환은 고전

2018년도 하반기 등급심사 결과가 나온지 4주가 지났다. 기대만큼 잘 타는 선수가 있는 반면 인지도에 못미치는 초라한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있다. 경륜뱅크의 배재국 예상팀장은 "선발급은 강급선수의 자력승부 능력치에 따라 흐름이 크게 갈릴 수 있고, 우수급은 편성 난이도와 복병의 유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흐름상 강급자를 맹신하기보다 2~3강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들의 전법상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2018년도 하반기 경륜 등급심사 결과가 발표한지 4주가 지나면서 승급자와 강급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선급 승급자 황준하처럼 기대에 걸맞는 성적을 내는 선수가 있는 반면, 선발급으로 강급된 지성환, 김재환 등 인지도에 못미치는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들도 있어 경륜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특선급의 라이징스타 황준하

승급선수들의 활약이 예상보다 약하지만 황준하(22기, S2)만은 돋보인다. 황준하는 7월27일 열린 광명 29회차 금요경주에서 500m에 이르는 엄청난 장거리 선행으로 2위에 당당히 자력입상했다. 강준영(22기, S1), 전원규(23기, S3)의 추입을 봉쇄하고 강자인 류재열(19기, S1)의 젖히기 반격까지 막아냈으나, 골인 직전 황승호(19기, S1)의 막판 추입을 허용한 점이 아쉬웠다. 기세가 오른 황준하는 다음날 토요경주에서는 한바퀴 반 이상의 선행승부를 펼치며 강호(23기, S1)와 황승호를 따돌리며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광명 30회차 토요경주에서는 젖히기 승부를 펼치며 박병하(13기, S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승급 후 가벼운 페달링을 선보이며 특선급 기존 강자들을 위협한 23기 전원규의 활약상도 눈에 띄었는데, 직전회차 일요경주에서 낙차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우수급에선 강급자도 방심금물

우수급 강급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김희준(22기, S3)이다. 김희준은 7월 초 경륜 하반기 등급심사에서 특선급에서 우수급으로 강등됐다. 하지만 강급 이후 출전한 9경주에서 8연속 1착과 2착 1회로 모두 입상하는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한달여만인 8월1일자로 A1등급에서 S3등급으로 특별승급했다.

강력한 선행력을 보유한 변무림(20기, A1), 전술이 다양한 김태한(22기, A1), 순간 폭발력이 양호한 원신재(18기, A1)는 강급 이후 여러 번 1착을 기록하며 강자다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강력한 견제에 밀려 입상에 실패하는 기복을 보여 우려스럽다. 특선급 수준의 시속을 보유한 신인들이 즐비한 우수급에서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강급자들도 방심하면 밀려난다. 전법상 한계나 과감성 부족,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만큼 입상도 어렵다.

●선발급은 강급자 수난시대

2000년 데뷔와 동시에 특선급 최강자로 자리매김했던 지성환(6기, B1)은 광명 26회차 금요경주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선발급 경주를 치렀다. 선행선수 엄지용을 활용해 쉽게 추입우승에 성공했지만, 토요경주에서는 12초09라는 다소 밋밋한 시속의 젖히기로 2착했다. 일요 결승경주에서는 같은 강급자인 박석기를 타깃으로 추주했지만 6착에 머물렀다.

특선급과 우수급을 넘나들던 마크추입형 김재환(9기, B1)은 강급 이후 창원 28회차와 부산 25회차, 광명 30회차에 연속 출전해 금·토 경주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입상 패턴을 보였다. 하지만 일요 결승에서는 모두 6착에 머물며 추입 전법상의 한계를 드러냈다.

예기치 못한 기습을 허용하며 태만실격을 당한 박광제(12기, B1)와 우승 기록 없이 마크 착순에 머물고 있는 박정식(10기, B1)도 선발급에서 고전하고 있는 강급자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상승세 탄 서종원·기광서…경정장에 '새 물살'

데뷔 2년차 서종원, 깜짝 3연속 2위
11기 기광서, 1·2일 연속 우승 기염

하위권 선수들이 미사리 경정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후반기 시작과 함께 급물살을 타며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먼저 데뷔 2년차 14기 서종원의 성장을 꼽을 수 있다. 후보생 시절 모의경주 성적이 크게 돋보이던 선수는 아니다. 12명의 14기 선수 중 승률 8%(9위), 연대율 17%(10위), 삼연대율 33%(10위)로 수면 적응이 빠르지 못했다. 지난해 우승 3회, 2착 1회, 3착 4회를 거뒀고, 올해 들어서도 전반기 동안 단 한 번 우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선 28회차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7월11일 1일차 11경주 3코스에서 어선규를 제치고 2위로 김효년과 동반입상하며 대약진의 스타트를 끊었다. 다음날 16경주에서도 1코스에서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연속 입상을 처음 기록했다. 모터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편성이 만만했던 것도 아니다. 배정받은 모터가 누적 착순점 2.72의 38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운보다 노력과 집중력이 가져다준 결과물이었다. 기세를 몰아 30회차 9경주까지 3연속 2위에 오르며 유망주로 급부상했다.



14기 서종원

11기 기광서

11기 기광서의 상승세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1착 7회, 2착 7회, 3착 10회였고, 올해 전반기에는 우승 2회, 준우승 5회였다. 그런데 후반기 31회차부터 맹활약을 펼치기 시작했다. 8월1일 7경주 2코스에서 김효년, 권명호, 문안나를 상대로 역습해 1착하며 쌍승식 35.6배를 팬들에게 선사했다. 이어진 13경주에서는 엔진이상으로 출주제외된 정민수의 부재를 틈타 2위에 올랐다. 다음날 11경주에서는 깔끔한 인빠지기로 우승하며 주어진 경주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2012년 데뷔 이후 가장 돋보이는 상승세다.

경정 전문가들은 "새롭게 시작된 후반기를 맞아 재도약을 하려는 선수들의 승부 의지가 변화된 모습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펠러 개인 소지제의 부활이 경기력 향상에 큰 영향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용운 기자

야구팬 49% "한화, 두산 원정 승리할 것"

야구토토 스페셜 79회차 중간집계
두산 4~5점-한화 6~7점 예상 최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는 8일 열리는 2018시즌 한국프로야구(KBO) 프로야구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스페셜 79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참가자의 49.04%가 두산-한화(1경기)전에서 원정팀 한화의 우세를 전망했다고 밝혔다. 두산의 승리 예상은 35.66%를 기록했고, 양 팀의 같은 점수대 예상은 15.33%로 가장 낮았다. 최종 점수대 예상에서는 두산(4~5점)-한화(6~7점)가 6.69 %로 1순위를 차지했다. 두산(2~3점)-한화(4~5점)와 두산(6~7점)-한화(4~5점)가 각각 5.13%와 5.03%로 뒤를 이었다.

한화가 잠실에서 두산을 만난다. 두산은 지난 4일과 5일 KIA에게 2연패를 당했지만, 2위 SK와 8경기 차이를 보이며 여전히 1위(68승 36패)에 올라있다. 70승 고지를 눈앞에 둔 두산은 매주 정규리그 우승에 가까워지고 있다.

3위(59승47패) 한화는 비상이 걸렸다. 후반기 들어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문제가 발생했다. 이태양, 송은범, 정우람의 필승조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후반기에 정우람이 3패를 떠안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선에서도 김태균, 양성우에 이어 송광민까지 부상자명단에 올라 중심타선의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다.

다만, 이번 시즌 압도적인 전력을 보이고 있는 두산에게 한화가 5승7패로 치열한 승부를 펼쳐왔던 것은 희망적인 사항이다. 한화는 12번의 맞대결 중 잠실에서 펼쳐진 6경기의 타율과 득점평균에서 각각 0.310과 5.67을 기록해 0.301과 5.83을 기록한 두산에 비해 경기내용에서 크게 뒤쳐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SK-삼성(2경기)전에서는 원정팀 삼성 승리 예상이 50.69%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어 SK 승리 예상(33.36%)과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5.98%)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SK(2~3점)-삼성(6~7점)이 6.92%로 최다를 기록했다.

마지막 넥센-KIA(3경기)전에서는 넥센 승리 예상(43.19%), KIA 승리 예상(40.53%), 양 팀의 같은 점수대 기록 예상(16.28%)의 순이었다. 최종 점수대 예상은 넥센(4~5점)-KIA(2~3점)이 5.79%로 1순위를 차지했다.

야구토토 스페셜 79회차 게임은 8일 오후 6시2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게임 발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1일부터 13일에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 6경기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게임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K리그에서는 11일 오후 7시에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작되는 전북 현대-강원FC(1경기)전을 비롯해 같은 날 열리는 제주-포항(2경기), 대구-인천(3경기), 그리고 다음날인 12일에 벌어지는 울산-수원(10경기), 경남-전남(11경기), 상주-서울(12경기)전 등이 대상경기로 선정됐다.

이어 개막을 맞이하는 EPL에서는 11일 오후 8시30분에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리는 뉴캐슬-토트넘전(4경기)을 시작으로 본머스-카디프(5경기), 풀럼-크리스탈 팰리스(6경기), 허더즈필드-첼시(7경기), 왓포드-브라이턴(8경기), 그리고 12일에 벌어지는 울버햄턴-에버턴(9경기), 사우샘프턴-번리(13경기), 마지막으로 13일에 시작하는 아스널-맨체스터 시티(14경기)전이 지정됐다.

넥센-KIA, 롯데-LG 승자는?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매치업 이벤트

㈜케이토토는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sportstoto.toto.proto)을 통해 주중에 열리는 KBO리그 2경기를 대상으로 승부를 맞히는 '8월 2주차 MATCH UP'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지정된 대상경기는 8일 오후 6시30분에 열리는 넥센-KIA전과 롯데-LG전이다. 스포츠토토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를 방문해 해당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팬들 중 두 경기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한 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